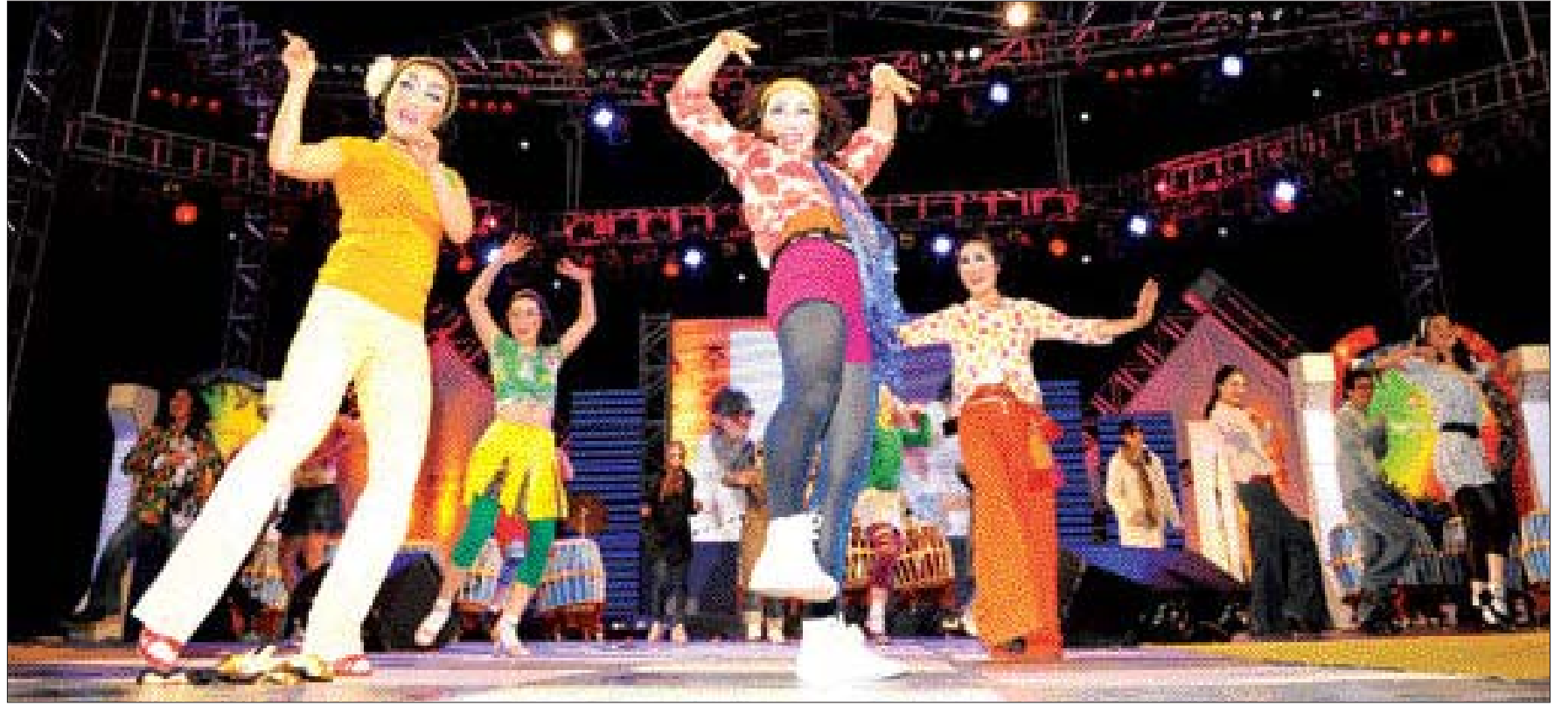




1만여명 열기 고조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 마련된 충장축제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제 6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개막식.



“이것이 디스코” 13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개막 축하공연에서 연기자 20여명이 창작 뮤지컬 ‘추억의 앨범’을 선보이고 있다. 뮤지컬은 1980년대 광주 젊은이들의 생활상을 담아 기획됐다.

추억속으로 GO~GO 신나는 시간여행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 거리잔치인 '제6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13일 국내 최대 규모의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퍼레이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0여개 문화·예술 단체 8천여명이 참가해 축제를 축하하는 거리 공연을 선보였다.

'난장 속에 조화를 이루는 대화합의 향연'이란 주제로 펼쳐진 퍼레이드에는 중요 무형문화재인 강강술래와 고싸움놀이와 중국 예술단 공연, 남부대학교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발리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포함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마다 충장축제 개막 당일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한국 최대의 거리축제답게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단의 공연이 어우러져 문화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옛 중앙교회에 마련된 '추억의 시간여행 전시관'이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았다. 올해 추억의 전시관은 30~40년전 충장로에서 볼 수 있었던 이발소와 다방, 선술집 등을 단순히 옮겨놓았던 과거와 달리 전문 연기자 20여명이 투입돼 추억의 전시관을 한층 더 사실적으로, 생동감있게 재현했다.

추억의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1970~80년대 충장로 모습 등 과거 광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그 시절 산모와 매표소 직원, 여고생 등으로 분장한 전문 연기자들과도 만날 수 있다. 또 잔뜩 멧을 부린 장발의 DJ가 들려주는 '7080 가요'를 들으면서 '추억의 커피'도 맛볼 수도 있다.

동구 관계자는 "축제를 관람하는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손 소독제를 금남로와 충장로 등 축제장 곳곳에 마련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지원 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며 "18일까지 계속되는 축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개막식과 퍼레이드 등에는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 등 전국 시·군·구 단체장 30여명과 1만여명의 관람객이 모여 축제 열기를 더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니명주·최현애 기자mjna@kwangju.co.kr



개막 테이프 커팅 충장축제 개막 첫날인 13일 오전 광주시 동구 옛 중앙교회에 마련된 '추억의 전시관' 개관식에서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세계 풍물 시장

금남로 3가 우리은행 골목에 마련된 '세계 풍물 시장'에서 한 외국인인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관람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수영 강강술래 충장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한 해남지역 자치센터 주민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관람객들에게 '우수영 강강술래'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

★ 제주 골프 특선 ★

- 럭셔리 해비지 리조트 34일 + 해비지**
 해비지CC 19일 + 세인트루크CC 15일 **₩189,000원**
- 라존 골프텔 34일 + 세인트루크CC**
 라존CC 19일 + 세인트루크CC 15일 **₩299,000원**
- 특급 호텔 2인실 + 영문CC**
 볼레오스, 세인트루크, 아델레스, 세인트루크, 파론 **₩309,000원**

고성 시은 제주도 패키지 여행

올레길 + 신제주 관광명소

▶ 관평호텔(2인실) ₩199,000 ▶ 특급호텔(2인실) ₩259,000

₩200이상 숙박 프로그램 매월 20일 한정

올레길, 신제주(신로, 아도전도, 불고사, 용머리해돋이, 무릉계곡, 삼구암사, 제비다리정물계곡)

02-382-8201 (주요어플린) |

 010-3613-7810